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1월 27일 (제87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누구를 만나느냐

요즘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 13:20)는 말씀이 실감나게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다. 작금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라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손을 잡느냐,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자주 말한 것이지만, 나는 목회 초기에 두 가지 꿈을 꿔다. 한 목사님과 별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데 폭풍한설이 몰려와 얼마나 추운지 실제로 자다가 깬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과 자는데 너무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여겨 후자 목사님의 목회 노선을 따랐다. 만일 내가 첫 번째 목사님처럼 목회를 했더라면 오늘날의 나는 없다.

여자 팔자 시집 가봐야 알고, 남자 팔자 장가 가봐야 안다는 말이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일생을 좌우한다는 뜻 아닌가.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 고생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을 통해 만남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잘못 만난 인연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 값싼 눈물 앞에 약해지면 안 된다. 내가 살고 봐야 할 것 아닌가. 사울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셨나? 단호히 그와 관계를 접으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잘못된 만남에 연연하던 삼손의 운명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동업하고 있는가? 식물은 환경을 바꾸지 못하지만,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나쁜 환경이거나 유익하지 않은 환경이거든 당장 그 자리를 옮겨라. 그래야 당신이 산다.

예수님을 만나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인생이 악과 선, 저주와 축복, 지옥과 천국으로 갈림을 알자.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확언컨대 우리 교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만을 자처하시는 목사님 스스로 “나의 일생은 기도였다. 이제까지 기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기도로 살아갈 것이다.”라며 우리 교단 성도들 모두에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실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이다.

목사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왔다. 혹자는 우리 교단이 귀신을 쫓는 사역에만 집중한다고 불만인데, 귀신을 쫓는 것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기도 하지만(막16:17),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기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며 전도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4:48). 목사님은 목회 32년 동안 오로지 보여주는 목회를 통하여 전국과 전 세계의 불신자들,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이 뜨뜻미지근한 자들을 주 앞으로 인

비롯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최저, 초고령화사회 진입 속도는 최고라고 한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성장엔진 자체의 노화를 피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북핵 문제와 한중, 한일 갈등 등 외교적인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호에는 이 모든 사안들을 예의주시하며 대처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상태다.

뚜렷한 자원도 없는 지극히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부단히 노

가짜! 기도원으로!!

추계산상집회

2016년 11월 28일(월)~12월 1일(목)

장성 예수중심기도원

여보세요! Hello!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 부족이다

Lack of Prayer, Lack of Everything

C.S. lee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기도가 떠난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 그리고 지난 주 메시지를 통해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기도가 떠난 자는 제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졌더라도, 목사, 장로, 권사라도 그 날을 보장할 수 없다.”

기도는 믿는 자의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영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을 한다.”

도하는데 올인해오셨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해보이신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전라남도 장성에 소재한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이초석 목사님의 추계산상집회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 모두가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국제질서도, 경제 패러다임도 가파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도 하루 속히 찾아야 하고, 이제는 후발주자가 아닌 선두주자로서 신기술을

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답은 다시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천지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이번 추계산상집회는 절호의 기회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2017년 새해 2일과 3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역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개최하신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2017년 1월 2일(월)~3일(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의 02-533-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전5:15~18)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돈? 빌딩? 주식? 다 좋습니다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최고의 유산일까요? 이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는 말씀 때문입니다. '범사(凡事)', 곧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만 산다면 절대 부족함이 없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8). 없어도, 망해도, 아파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다윗은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삶이었고, 병들었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116:12)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음이 합한 자’라 칭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험산준령을 넘나든 인생길에서도 요셉은 불평 대신 감사, 불만 대신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종으로 팔려간 나라의 총리대신 자리에 올랐고, 이로 인해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행복(幸福)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욥의 이야기도 해볼까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주신 것을 다 빼앗으면 그도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입니다(욥1:9~11). 감사할 조건이니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에 “그래, 정말 그런지 시험해봐라.” 하시고 마귀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러자 욥의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죽

고, 몸에 악창이 나 기왓장으로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 대신 감사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1:21). 왜요? 그는 하나님 덕분에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덕분에’ 신앙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화가 납니다. 그 러나 ‘~덕분에’ 라고 생각 하면 께 달 게 되



총회장 이초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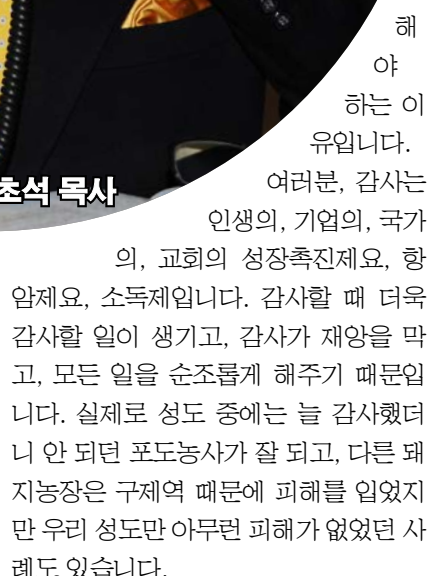
고 ,
감사하
게 되지요.
작금에 대한민
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기에
앞서, 불평하기 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 덕분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암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하실 것이
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소원하는 평화통일
의 길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깐요.

제가 목회 2년 만에 3천명의 성도를 모
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교만
이 도가 넘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설
교를 하고 당회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
기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겨우 눈만 깜
빕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누워
있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
지 않았지만 맘속으로 살려만 주시면 평
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겸손히 섬기겠노
라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겠노라고 울
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간신히 제 입에서 '예수' 소리가 나왔습

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사지가 풀려 살아났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임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 일 덕분에 저는 이후로 낮아지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하려고 평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실패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실패를 통해 경험을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올 때 힘들어한다고 칼로 옆의 고치를 뜯어주면 그 나방은 나와 곧 죽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됩니다.

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에도 감사, 실패
에도 감사,
병들 때
도 감
사



해
야
하는 이
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기업의, 국가
의, 교회의 성장촉진제요, 항
암제요, 소독제입니다. 감사할 때 더욱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가 재앙을 막
고,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주기 때문입
니다. 실제로 성도 중에는 늘 감사했지
니 안 되던 포도농사가 잘 되고, 다른 왜
지농장은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
만 우리 성도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사
례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영적 지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만이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17:19)고 하셨습니다. 아홉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잊은 채 제 길로 갔지만, 이방인 한 사람만이 감사하여 사례했더니 감동

하신 예수님이 그를 육신의 병에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더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갑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이고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자다

이 감사는 인간사 속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썸의 물이 마를 때까지 감사를 모릅니다. 썸의 물이 말라야 썸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직장을 잃고 나서야, 가정이 깨지고 나서야, 국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이 있었을 때 감사하지 못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해봅시다. 오늘 저녁 퇴근하는 남편에게 ‘돈 벌어오느라 애쓴다, 고맙다.’고 해보세요. 집안 살림 하느라 변변한 옷 하나 없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보세요. 애들에게 공부 못한다, 말 안 듣는다 하지 말고 ‘별 탈 없이 지내줘서 고맙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공부시키느라 허리가 흰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 서빙해주는 분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깎두기 하나라도 더 줍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에도 감사하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주의 일이 신나고 힘들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날로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하긴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딤후3:2). 그러나 나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내 자손에게 감사의 습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시100:4).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꿈과 상상력의 시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21세기의 혁명적 변화의 파고가 거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그야말로 전인미답(前人未踏)의 형국이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오로지 추격자의 자세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선진국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롤모델 삼아, 말하자면 이미 그들이 찾아놓은 정답을 좇아 달려온 셈이다. 그런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다. 국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선도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교육도 정답교육이 지배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을 앞세워 선진국 따라잡기에 올인했다. 실패자들, 성적 낙오자들까지 챙길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와 이른 성과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더 이상 기존의 추격자 전략을 앞세운 국가주도형 성장패러다임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추격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대표되는 무서운 추격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우리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 즉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돈을 좇는 전략이 아니라 꿈을 좇는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제는 정답을 잘 맞히는 인재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않고 새로운 도전을 마다않는 창조적 인재교육

을 지향해야 한다. 실패를 징벌할 게 아니라 많은 실패를 통해 세계를 개척해가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왜? 이제 우리는 확실한 답이 없는 길을 개척해가며 불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답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수행했던 일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척해온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시장개척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앞세워 다양한 분야를 공략해야 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탐색하는 척후병 역할을 대기업에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큰 투자가기 때문이다. 우수한 재들이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골몰하고, 대졸자의 70%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나라는 지속가능한 국가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은 창업에 도전하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꿈이 비록 허황되어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지원해야 한다.

목사님은 지난 청소년수련회를 통하여 ‘남들이 비웃는 꿈을 꾸라’고 강조하셨다. 남들이 ‘그럴듯한데?’ 하며 수궁하는 꿈이 아니라 ‘정신 나간 놈’이라고 비웃는 꿈을 꾸고 이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고정관념의 혁파,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 사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이야기다. 바야흐로 꿈과 상상력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To Be Succeeded ::

위기의 파도를 즐겨라

위태할 위(危), 기회 기(機). 사실 위기란 한자를 풀어보면 발전과 성장의 기회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여 성장과 도약을 이뤄낸 사람들이다.

‘위기관리능력’, 또는 ‘위기대응능력’이라 명명되는 이 자질을 가진 이들에 의해 개인과 단체, 국가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존망과 성패가 좌우되다시피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월등한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 앞에 모두가 속수무책일 때, 전략과 정신력이 준비된 이순신 장군의 일사각오의 태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꿨놓았다. 왕위에 오른 뒤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애민사상으로 혼민정음과 각종 농업관련 과학기구 발명함으로 피폐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 세종대왕 역시 위기관리 리더십이 탁월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위기관리능력이 뛰어난 이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흥미하거나 주저앉아 낙담하기보다는 결단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줄 안다. 또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여 없던 길도 만들어 내는 편을 택한다.

믿음의 조상 야곱 역시 양과 염소의 소유 문제로 외삼촌 라반에게 눈엣가시가 되는 위기상황을 만났을 때, 망설이지 않고 가족과 소유물 모두를 데리고 본토로 향하는 결단력을 발휘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나서 뒤쫓아 온 외삼촌에게 오히려 축복을 받는 상황을 예비해놓으셨다. 이어 팔죽 사건으로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형 에서를 앞둔 위기 앞에서도 그는 끝장정신을 발휘, 가족을 모두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영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은 말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더 높이 난다고. 잠잠한 바다 위에서만 파도를 탄다면 파도의 묘미를 경험할 수 없고, 최고의 서퍼로 거듭날 수도 없다. 무서운 것은 위기가 아니다. 위기 앞에 두려워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나약한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더 경계하고 근절시켜야 할 대상이다.

내 삶에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 나는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인가?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하나님의 지켜보심

성경에 ‘가라지’라는 잡초가 나온다. 가라지는 1년생 잡초로 처음에는 밀과 잘 구별되지 않으나 자라서 이삭이 피면 키도 웃자라고 색깔도 짙어져 밀과 구별이 쉽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시어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시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하고,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라고 하셨다(마13:29~30).

가라지가 곡식과 구별되기 쉽도록 기다리는 지혜와 온전한 하나의 곡식마저 뽑힐까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엿볼 수 있다.

세상에는 한탕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 줄타기 잘해서 권력을 쥔 사람, 부정을 저질러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보고 있자면 마냥 선량하게 살아서는, 마냥 정직해서만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나? 그러나

그들은 가라지에 불과하다.

악한 마귀는 당장에 직면한 현실만 보도록 만든다. 당장 그 순간만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은 계속 흘러가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종국에 심판을 받는다.

사실 일평생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곧은길로만 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여 유혹이 올 때, 편법을 쓰고 싶을 때, 두루 뭉실 선을 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정상범주 내에 들어서게 된다. 경기 때 규칙을 위반하지 못하는 이 유가 심판 때문인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억압이 아닌 옳은 길로 인도하심이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자. 그래야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 생명의 말씀 ::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 철마다 이토록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은 예술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품들을 보면서 그저 감사한다.

인간의 뇌에서 추출되는 20여 가지 좋은 성분 중 하나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몸의 면역체계에 침투해 각종 불치병까지 치유하는 다이돌핀이란 호르몬이 있다. 이 다이돌핀은 진한 감동을 받을 때 생성된다.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고, 전혀 알지 못하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는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등, 다이돌핀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진한 감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한다. 그러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를 하다 보면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에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에

명하신 것이다.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불치병도 치료하는 다이돌핀을 내 몸에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감사를 하다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넘치고, 그로 인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정의할 때 부유하게 사는 것, 비싼 자동차를 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행복일까?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속에 근심걱정이 없고, 억울한 생각이 안 일어나고, 화나는 마음이 일지 않는 등 부정적인 정신요소가 없어야 하고, 푸른 산, 맑은 물,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내 주위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하다보면 진한 감동이 몰려오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일상 중에는 감사할 일이 많다. 감사를 끊임없이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오길 기대해 본다.

임택한 목사
cjcc1004 @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

:: 참된 깨달음 ::

함께하는 기쁨의 감사

얼마 전, 부모님 생신이였다. 우리 부모님의 생일은 같은 날이다. 시집가서 맞은 첫 번째 부모님 생신 파티는 신혼집에서 내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나물 반찬으로 대신하였다. 일 년 중에 364일을 내가 먹을 밥을 차려 주시는 엄마지만, 매년 생일상을 차려 놓으면 세상에 없는 맛난 음식을 본 것처럼 즐거워하신다. 이번에도 내가 만든 미역국은 싱겁고 밍밍했지만 아버지는 정말 맛있다고 밥 두 그릇을 다 비우셨다. ‘시집가도 되겠네~’라던 칭찬은 더 이상 듣지 못하지만, 새로 생긴 아들(사위)과 함께 넷이서 먹는 생일 밥상은 꽤 즐거운 자리였다.

퇴근이 늦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음식을 만들면서, 또 부모님이 깨끗이 비운 그릇들을 설거지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부모님께 미안해서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될

게요.” 라고 했었는데, 기약 없는 미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서투른 반찬 한 가지가 엄마를 더 기쁘게 하는 것 같다. 비록 시금치 반찬이 너무 싱거워 소금과 간장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ويتي 중헌지’를 알게 된 것 같다.

먹고 사는 일에 쫓겨, 꿈을 향해 내달리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지났다. 지난 한 해동안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했는지를 생각해보기에는 적당한 시점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날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진실한 감사를 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하루하루를 살지만, 내가 걷는 이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사기도는 점점 멀어졌던 것 같다. 하나님께 내뱉었던 서원들과 결심들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가능하고, 더 높아져야 가능한 것들이기 때

문이다. 더 큰 성공을 위해 지금의 기쁨과 감사는 연기되고 만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부모님이 나를 보며 무장해제 상태로 크게 웃으시는 이유는 내가 박사 학위를 받거나, 일류 셰프 수준의 요리를 해서가 아니다. 지금의 내 노력이 그저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것뿐이다. 단지 부모님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는 기쁨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부모님은 즐거워하셨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기쁨,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가면서 온 몸으로 뛰놀며 춤추었던 다윗처럼(삼하6장), 내가 받은 축복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럼, 우리 주님도 부모님처럼 무장해제한 표정으로 웃으시지 않을까?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197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조지 포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973년까지 40전 40승 37 KO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3라운드 이전에 거둔 KO승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중에 무하마드 알리와 세기적인 대결에서 8회 KO패를 당하며 처음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설욕전을 준비했으나 기회가 찾아오

지 않아 1년간 쉬다가 페드로 아고스토를 이긴 후 두 달 만에 무명의 지미 영이라는 선수와 맞붙어 예상치 못한 판정패를 당하고는 경기 후 탈의실에서 심장마비까지 일어나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수상태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나타나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가까스로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고 나니 금고 속에 있는 수백만 달러의 지폐도 한낱 종이폭지에 불과했고, 허리에 둘렀던 챔피언 벨트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성과 박수도 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 평안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고 놀라운 멋진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Global Study ::

✧ 조금은 제 무덤 제가 파는 것이다

Being impatient is like digging your own grave.
急躁就是自掘坟墓。

✧ 5번 생각할 것 10번 생각하라

Think ten times if you were planning to think five times.
要三思而后行。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기억력을 높이는 오미자차

방금했던 일이나 알고 있는 사실을 깜빡 잊어서 사물의 처리능력이 약해진 것을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에도 잘 걸리므로 젊어서부터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하여도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므로 날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하여 체내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평생 공부와 지식을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기억해내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여서 뇌가 녹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감퇴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스트레스나 걱정으로 인하여 심장의 혈액이 손상되어 건망증이 생기는데, 이때는 오미자차가 효과가 좋습니다. 오미자에는 뇌파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졸음을 쫓을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시력 감퇴나 기억력 감

퇴를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깨끗이 씻은 오미자를 차가운 물에 담가 24시간 우려내고 걸러내어서, 꿀과 같은 단맛을 조금 덧붙여 시원하게 복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이 산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때는 연근즙이 도움이 되며, 연근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의 불안정한 상태를 조절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하는 호두, 땅콩, 참깨와 같은 견과류를 역시 뇌를 맑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명하면서 건망증이 심할 때는 총명탕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총명탕에는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백복령, 사고능력을 좋게 해주는 원지, 석창포들이 들어있는데, 이 약재들을 하루에 8g씩 끓여서 마시거나 가루 내어 녹차에 타서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체력이 떨어지며 건망증이 심할 때는 용안육, 대추, 감초, 당귀를 하루에 8g씩 끓여서 차로 마시게 되면, 기력도 회복하고 신경도 안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숙면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대추는 뇌의 영양효과가 커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타인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용서를 못하고, 이해할 줄 모르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뇌를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뇌가 그쪽만 굳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활동, 건강한 음식, 건강한 대인관계의 삼박자를 잘 맞추고 소중한 뇌를 잘 가꾸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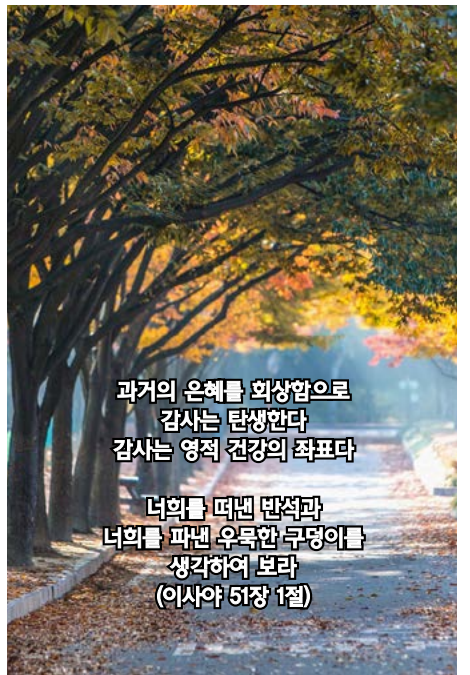
거룩한 맨발!

30여년을 한결같이 엄동설한에도 맨발로 다니며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향해 “남북이 통일되면 신발을 신는다.”고 외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모두 킁킁거리며 무시했던 할아버지는 광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위엄이 있었고 힘찬 노인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김우현 PD가 할아버지의 거칠고 더러운 맨발에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초여름이었습니다. 괴이한 행색을 한 채 지하철에서 알아듣기 힘든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할아버지에게 자신도 모르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어느 날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는데, 그 분은 반듯한 주택에 살고 있었으며, 5남매를 목사와 교수 등으로 길러낸 분으로 할아버지 자신도 동경유학생 출신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수재였고,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동네로 나뉜 김포 일대가 전부 그분의 소유였지만 움켜지지 않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고, 무서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없다.”고 수줍은 듯이 말씀하셨던 할아버지는 2001년 8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분단현실이 부끄럽다며 일체의 보상을 사양했던 할아버지를 위해 자손들은 대전 국립묘지 제2 애국지사 묘역에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김우현 PD는 최근 할아버지의 동영상을 담은 DVD ‘팔복’과 못 다한 이야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고, 동영상은 인터넷과 교회를 통해 감동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의 무지와 무관심속에 ‘저 낮은 곳에 머물다 간’ 하늘나라와 이 땅의 애국자입니다.

요즘 나라전체를 혼란에 빠트린 국정농단사건의 전모를 바라보며 거룩한 맨발의 할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적인 통일집회를 열고 있는 우리 교단과 맨발의 할아버지가 소원 하던 남북통일이 하루 빨리 평화롭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렵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으로
감사는 탄생한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너희를 떠낸 만석과
너희를 파낸 우룩한 무덤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 51장 1절)